

제7차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와 발전 방안

이 인 재
(광주교육대학교)

《 요 약 》

본 논문의 목적은 2000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제7차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무엇을 보완해야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초등 도덕 수업의 내실화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첫째, 현행 초등 도덕교육의 위상이 도덕교육에 대한 경시풍조와 관련되어 매우 약화되었음을 밝히고, 둘째, 현행 초등 도덕교육의 실태를 초등학교 '안'의 문제(교육과정 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밖'의 문제(초등 도덕교육에 대한 사회의 인식 및 분위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셋째, 초등 도덕교육의 발전 방안으로서, 초등 도덕교육에 대한 이론적·실제적 정당화 근거를 확보하여 초등 도덕교육의 위상 제고,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의 내실있는 운영, 초등학교 도덕과 수업의 원리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과 활용 능력을 갖추기, 학교 도덕교육을 저해하는 전반적인 교육 체제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초등 도덕교육의 위상 약화와 위기, 제7차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 교과형 도덕교육, 도덕 수업의 내실화, 초등 학생의 발달적 특성, 도덕교육을 위한 외적 환경의 개선

I. 문제의 제기

현재 초등학교의 도덕교육은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금년을 기준으로 볼 때, 2000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제7차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은 1-2학년이 4년제, 3-4학년은 3년제, 5-6학년은 2년제를 맞고 있는 셈이다. 그 동안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의 현장 적응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교육과정 연수 및 수업 연구 발표회 등 여러 통로를 통해 다각적이고도 자율적인 노력이 활발하게 있어 왔다.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광주교육대학교에서도 최근 3년 동안에 매년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 직무

연수 내지 도덕과 학습 지도법 연수를 전남지역 교사를 대상으로 해 왔고, 광주시 교육청에서도 자체 연수원에서 동일한 교육을 해 오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은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의 개정 중점, 기본 방향 및 원리, 도덕과의 성격 및 목표, 내용, 지도 방법 등에 대해 현장 교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실제 수업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유익한 계기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제7차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 생활의 길잡이, 교사용 지도서 개발과 그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필자는 누구보다도 개정된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이 초등 현장에 제대로 착근되어 초등 도덕교육의 효과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바랬던 바, 지난 3년 동안 광주교육대학교 대학원 초등도덕교육 전공과정에서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 운영 실태에 대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광주·전남 초등도덕교육연구회의 도덕수업 공개 발표회나 협의회, 그리고 도덕과 연수 등을 통해서도 초등 현장에서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 과정에서 교사들은 어떤 점에서 불편함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지를 밀도 있게 살펴볼 수 있었다.

이 글은 바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도덕수업을 참관하고, 이에 대해 협의하는 가운데 제기된 도덕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들을 집약하고 이에 근거하여 필자 나름대로의 발전방안을 제시한, 일종의 질적 연구방법¹⁾을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본 논문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2003년 4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두 달 동안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등학교와 목포부설초등학교에 재직하는 도덕교육 전공교사, 광주교육대학교 대학원 초등도덕교육전공과정에 재학중인 대학원생, 광주 교육청 내 초등 도덕교육 전문 교사, 전남 교육청 초등도덕과 특별 연구교사 및 수업 장학 요원 교사 등 남녀 교사 10명과의 간단한 설문과 심층 인터뷰한 자료가 적극 활용되었다.

현행 5·6학년을 기준으로 보면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의 적용 및 실천을 위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 실태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데 다소 부리가 있을 수 있고, 또 광주·전남의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개별 인터뷰 및 약식 설문 조사 그리고 수업 협의회 등을 통해 취합한 결론이기에, 전국을 대상으로 일반화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을 근거로 초등 현장에서 직접 도덕교육을 하고 있는 교사들의 견해이고, 본 인터뷰 및 설문에 응한 교사들이 주로 각자의 학교 내지 교육청에서

1) 본 논문은 비록 완전한 형태의 방법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작성된 것이다. 체계적인 질문지를 활용한 응답 결과를 통계 처리한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도덕수업을 참관하고 그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자의 의견 개진, 그에 대한 교사들의 반응 청취 등의 과정을 반복하여(참여관찰, 개방적 질문에 의한 인터뷰) 도출된 의견을 주제별로 요약 압축하였고, 객관도를 높이기 약식 설문지를 구성하여 의견을 청취하여 인터뷰의 내용과 일치된 자료를 확보하여 근거로 삼았기 때문이다.

특별히 초등 도덕교육에 남다른 관심과 열의를 가진 리더격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활용하고 있는 자료는 현재 초등 도덕교육의 위상과 운영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살펴볼데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 초점을 둔 것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하나는 현재 초등 도덕교육의 위상은 어떠한가? 그리고 초등 도덕교육의 위상이 소위 ‘도덕교육의 위기’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이고, 다른 하나는 초등 도덕교육의 현 실태는 어떠한가?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보완해 볼 수 있겠는가? 이다. 초등 도덕교육의 현 실태를 살펴봄에 있어 초등학교 ‘안’의 문제와 ‘밖’의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초등학교 ‘안’의 문제는 미시적 분석으로 초등 도덕교육의 내면적 측면, 즉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가 주요 분석 내용이 되었고, 초등학교 ‘밖’의 문제는 거시적 분석으로 초등 도덕교육에 미치는 외적 측면, 즉 초등학교 도덕교육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내지 가정교육의 영향 등이 주요 분석 내용이 되었다.

II. 현행 초등학교 도덕교육의 위상은 어떠한가?

초등 도덕교육의 위상이란 초등학교에서 도덕교육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말하는 것으로, 대체로 초등 도덕교육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 실제적인 효과 및 그에 대한 기대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척도에서 볼 때 현재 초등 도덕교육의 위상은 어떠한가? 한마디로 말할 수 없이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초등 도덕교육의 위상이 약한 것은 비단 어제, 오늘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있는 현재에도 나아지지 않고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더욱 우려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러한 악화된 위상 혹은 도덕교육에 대한 경시가 도덕교육의 존재를 둘러싼 초등 도덕교육 나아가 학교 도덕교육의 위기와 직결되고 있다는 점이다(정세구, 1991; 정보주, 2002; 이인재, 2003). 특히, 초등 도덕교육에 대한 경시 분위기는 심각할 정도로 팽배해 있으며, 도덕 교육의 실효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집요하게 도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하에서는 현행 초등 도덕교육의 위상과 관련해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1. 초등 도덕교육에 대한 경시 태도의 팽배

초등 교사와 초등 학생들을 막론하고 초등교육 현장에서 전반적으로 도덕과 교육에 대한 무관심 내지는 경시 풍조가 만연되어 있다. 초등 도덕과 교육에 대한 무관심 내지 경시 풍조가 오늘의 문제만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것이지만, 최근에 심해지고 있으며 그

로 인하여 도덕과 교육과정 운영이 궤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도덕 수업은 다른 교과와 달리 특별하게 준비하지 않아도 누구나 가르칠 수 있다는 안이한 태도가 도덕 교과서를 철저하게 분석하는 등 사전에 충분한 수업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부추기고, 그래서 도덕 수업을 국어과 수업처럼 교과서를 읽게 한 후 학생의 느낌이나 각오를 발표하게 한다거나, '생활의 길잡이'에 나온 문제를 푸는 것에 할애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도덕 수업은 별로 새로운 것도 없고 고리타분한 것 혹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반복하는 그래서 지루한 시간 정도로만 여기도록 함으로써²⁾, 도덕 수업에 대한 관심이나 흥미를 잃게 하고 그래서 결국 도덕 수업을 산만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도덕과 교육의 경시 태도는 일주일에 1시간씩 하도록 되어 있는 수업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 업무 처리나 학교 행사로 인하여 수업 결손이 생길 때 아주 자연스럽게 가장 우선적으로 희생되곤 하는 것이 바로 도덕 수업 시간이라고 한다. 주당 1시간 밖에 되지 않는 도덕 수업이 학교 행사나 학급 활동의 일환으로 대체되거나 생략되어 수업 결손이 자주 생길 때 도덕 교과의 목표 달성에 매우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의례 도덕 수업은 학교 행사의 일환으로 혹은 교장 선생님의 훈화로 대체 가능한 것으로 쉽게 인식하게 된다. 이럴진대 도덕수업을 통해 기대하는 목표가 어떻게 제대로 달성될 수 있겠는가? 바로 이와 같은 도덕과 경시 태도는 가르치는 교사와 배우는 학생 모두에게 도덕 수업을 소중하게 느끼지 못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도덕 수업을 진지하게 진행하는데 큰 장애로 작용한다.

2. 도덕과 교육의 실효성 문제

우리 나라 초등학교 도덕교육이 독립적인 교과교육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제3차 교육 과정 시기(1973-1981)로서, 이때부터 비로소 교과의 정체성을 수립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그로부터 도덕과 교육의 실효성 문제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제기된 것은 제6차 교육과정 개정에서이다(한국교육개발원, 1992; 한국교육개발원, 1993). 여기서 말하는 '도덕교과의 실효성 문제'란 학교에서 하나의 교과로서 가르쳐지고 있는 도덕과 교육이 학생들을 도덕적 인간으로 기르는데 실질적으로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이다(한국교육개발원, 1993).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도덕과 교육의 결과로 달성되리라 기대하는 효과가 '학생들의 도덕적 행동의 변화'인데, 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도덕과 교육이 우

2) 실제로 필자가 초등학교 도덕수업 참관을 위해 만나 본 3-6학년 학생들의 도덕수업에 대한 반응은 호의적이지 못함을 느꼈다. 어릴 때부터 자주 듣는 얘기다 보니 별 흥미를 못 느낀다거나, 웬지 나를 구속하는 듯한 명령을 많이 해서 싫고, 교과서를 읽고 그렇게 하라고 넘어가는 식의 수업 시간이 재미없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리 사회의 도덕적 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해 그 효과가 없거나 크지 않기에 도덕과 교육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 주장도 쉽게 논박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도덕교과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경험적 증거가 매우 박약하기 때문이다. 즉, 그들의 주장은 경험적인 증거에 의해 진위를 가릴 수밖에 없는 바, 아직까지 이러한 주장을 충분히 뒷받침할 만한 경험적인 연구 결과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덕교육이 실효성이 없다는 경험적 증거가 없기에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반론 역시 도덕과 교육의 실효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설득력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도덕과 교육의 실효성 문제’는 비록 그것에 대한 경험적 증거가 아직 충분하지 못하여 반박되고 있지만, 적어도 도덕교육 옹호론자들로 하여금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도록 자극을 준다고 본다. 첫째는 초등학교 도덕교육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체계적인 노력을 성실하게 하도록 한다는 점과, 둘째는 정말 초등학교 도덕교육이 전혀 성과가 없는 것인지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적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신뢰할만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첫 번째의 문제와 관련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초등학교 교육의 특성과 초등학생의 발달을 고려한 도덕과 내용학, 도덕과 교수·학습방법론 등이 초등교사 양성기관인 교육대학교 <도덕과 교육>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가르쳐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대학교의 <도덕과 교육>이 초등학교 현장의 요구에 눈감아서는 안된다. 흔히 교육대학교를 졸업한 후 초등학교 현장에서 도덕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들로부터 이구동성으로 듣는 얘기 중의 하나는 교대에서 배운 내용들을 초등학교 도덕수업을 위해 활용하고자 할 때, 상당한 괴리가 있어 적시에 유효하게 활용할 수 없어 막막해 한다는 것이다. 신입교사가 교단에 섰을 때 4년 동안 교원양성기관에서 습득한 지식과 교수능력이 도덕수업을 위해 별로 효용성을 갖지 못하고 현장에서 별도의 시간과 노력을 통해 현장 적합한 지식과 교수능력을 다시 갖추어야 한다면, 이는 엄청난 비효율이고 이는 결국 교대 <도덕과 교육>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할 것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초등 도덕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초등학생들의 눈높이로 재구성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어야 할뿐만 아니라, 왜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갖게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초등 도덕수업을 적절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도덕과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하여 발령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초등학교 현장과 연계된 강의와 연구는 현장과의 괴리를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초등 도덕교육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

두 번째의 문제와 관련해서 교대 윤리과 교수들에게 요구되는 것 중의 하나는 바로 초등 도덕교육의 실효성을 증명할 수 있는 타당한 경험적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연구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경험적 자료에 근거하지 않는 추론에 의한 초등 도덕교육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논의는 근거가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공허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나라 학교교육에서 별도의 교과를 둔 도덕교육이 효과가 있다는 경험적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도덕과 교육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을 쉽게 논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도덕교과의 실효성 문제 제기가 던져주는 함의를 직시하지 않는다면 도덕과 교육의 비효율성을 근거로 한 도덕교과의 폐지론 혹은 축소론의 집요한 주장에 타당한 답변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도덕과 교육의 실효성을 보여줄 수 있는 실증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어느 한 두 사람의 힘으로보다는 집단적 사고와 노력이 경주되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초등 도덕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실증적 자료 확보를 위한 노력에 전국 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들 및 초등학교의 도덕교육 전문가들과의 협력 하에 빠른 시일에 체계적으로 추진되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이러한 일은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의 기획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으로 본다.

다른 한편으로 도덕과 교육의 실효성 문제는 도덕과 교육보다는 기타 교과 내지는 생활지도도를 통해 도덕교육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일부의 주장과도 연결된다. 그러나 이 주장에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풍토가 학교 도덕교육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가로막아 왔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별도의 교과목 없이 전 교과를 통해 도덕교육을 하고자 시도했던 제2차 교육과정의 실패에서 찾을 수 있는 교훈을 망각하고 있다. 학생들의 비도덕적 행위가 증가하고, 사회의 도덕성 타락이 문제될 때마다 학교의 도덕교육은 무엇을 했느냐고 비난을 강화하고, 앞으로 도덕성 회복을 위한 학교 도덕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실제로는 학교 도덕교육을 경시하는 정책이나 분위기가 확산되어 온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 그러면서도 별도의 교과를 두는 도덕교육보다는 생활지도 내지는 타 교과에서 해도 충분하다는 발상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장에 대해 역으로 도덕과 교육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었는가? 라고 되묻고 싶다. 다시 말해 학교 도덕교육이 나름의 목표를 원활하게 성취할 수 있는 여건을 제대로 마련해 주고 있는 비판인가? 하는 점이다. 아무튼 이 주장도 경험적인 증거 자료에 의해 그 진위가 밝혀질 수밖에 없는데, 아직 어떤 경험적 연구도 이 두 가지 접근 중 어떤 것이 학교 도덕교육의 목표 달성에 유리한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쉽게 반박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학교 도덕교육은 ‘교과를 통한 도덕교육’과 ‘인상생활을 통한 도덕교육’이 조화를 이루어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질 때 보다 원만한 목표 달성이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자택일적인 접근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은 한마디로 말해 도덕수업 시간을 통해 초등 학생들에게 유덕한 존재가 되는 기초 능력을 함양하는데 초점을 두되, 이러한 도덕과 교육의 목표는 기타 교과활동, 교과 외 활동 및 학교의 잠재적 교육과정의 연계 속에서 지원을 받지 않으면 쉽게 달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교육은 별도의 교과를 두어 하기보다는 생활지도 속에서 혹은 다른 교과활동 중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일부의 주장은 인간의 도덕성 형성을 위한 전체

적 맥락이나 우리 나라의 독특한 교육·문화적 특성을 간과한 편협한 주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 나라에서 그 동안 도덕과를 하나의 교과로 설정하여 가르치는 “교과형 도덕교육”의 형태를 유지해 온 것은 우리의 교육적·문화적 배경과 밀접히 관련되고, 우리의 상황에 적절한 교육형태이며, 우리 나라 도덕교육의 장점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조난심, 1999). 교과형 도덕교육에서는 일차적으로 도덕적 개념을 배우고 그것을 활용함으로써, 다시 말해 윤리학적 개념을 활용하여 총체로서의 행동을 도덕적 측면에서 이해하도록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교과형 도덕교육은 궁극적으로 도덕 수업이나 다른 교과 시간에 배운 가치나 규범을 실천하는데 목표를 두지만, ‘도덕적 행동’을 실천하는 것과는 별도로 행동의 도덕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초점을 둔다(임병덕외, 1998). 도덕교육이 학생들로 하여금 단순히 도덕적 일탈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선과 가치, 인간으로서의 올바른 삶에 대한 깊은 성찰로 이끄는 것이라면, 총체적 행위로서의 행동의 도덕적 의미를 이해하는데 기본 목표를 두는 교과형 도덕교육은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귀중한 교육적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존재 의의가 충분하다고 본다. 따라서 “교과를 통한 도덕교육”이 학생들의 생활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의 문제로 교과형 도덕교육의 위상이 흔들리는 오류가 생겨서는 안된다.

Ⅲ.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 운영의 실태

1. 초등학교 안의 문제

주지하다시피,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도덕과의 목표, 특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교육부, 1997).

초등학교 도덕과는 학생들로 하여금 도덕적 문제를 올바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유덕한 인간을 기르는데 기본 목표가 있다.……이를 위해 통합적 인격교육 내지 덕중심의 접근을 지향하여 도덕성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이 균형을 이루어 유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최대화하여 도덕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직접적인 실천과 활동, 적극적 참여와 체험위주의 교수·학습 방법을 더욱 강화했다.…… 도덕과 수업은 학생들이 도덕적인 가치와 규범에 대해 알고, 그러한 가치나 규범에 대한 관심과 열정 그리고 헌신하도록 감정적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의 주요 가치·덕목을 총 3차시를 통해 지도하도록 한다.

위에서 언급한 제7차 초등 도덕과 교육의 목표와 특성에 부합한 도덕과 교육과정 운영에서 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애로점과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도덕 수업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토로한다. 도덕 수업에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교사를 만나 대화를 해도 도덕 수업을 할 때마다 어렵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는 것이다. 어떤 계기에 의해 도덕 수업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했던 한 교사는 이에 관한 솔직한 심정을 다음과 같이 털어놓았다.

“평소 별 의식 없이 도덕수업을 해 오다가 막상 공개 수업을 한다고 생각하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수업 안을 준비하고 실제로 공개 수업을 하는 동안에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도덕 수업의 방향이 올바른 것인지, 그런 것인지 자신감을 갖지 못했다. 다른 교과처럼 수업의 맥을 잡기가 어려웠다. 나의 도덕 수업을 보고 평가하는 동료 교사들의 관점도 너무나 다양해서 어느 기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지 막막했다. 열심히 한다고 해도 수업을 잘했다는 표가 별로 나지 않는 것 같다. 아마 초등학교에는 도덕 수업에 대해 나와 같은 생각을 갖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와 같이 도덕 수업에 대한 어려움은 도덕 수업에 대한 두려움 즉, 자신감 상실로 이어지고 또한 궁극적으로 도덕 수업의 회피 내지 적당하게 넘어가는 것으로 연결되곤 한다.”

도덕수업을 왜 어렵게 느끼는지 그 이유에 대해 교사들은 ① 도덕적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마음이나 도덕적 생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수렴적 혹은 발산적 질문을 하기가 어렵다. ② 관련된 규범을 찾고, 도덕적 판단을 연습하도록 하는 도덕적 문제 상황을 구성하여 제공 하기가 어렵다. ③ 학생들의 도덕적 판단(말)과 실천(행동)의 일치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고 이를 적절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④ 반복적, 지속적 학습을 위한 가정과의 연계 지도가 어렵다. ⑤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체험 및 실천활동을 위한 학습 자료를 찾거나 제작하여 학생들이 흥미를 갖도록 적절하게 제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⑥ 저학년부터 자주 들어온 가치·규범에 대한 학습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에게 지적 호기심이나 적극적 참여의 동기를 유발하기가 어렵다. ⑦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1체제를 3차시로 나누어 지도하도록 되어 있는데, 체제에 따라 3차시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약간은 부리가 있으며, 특히, 3차시 행동적 측면 중심의 수업을 교실에서 원활하게 진행하기가 어렵다. ⑧ 도덕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업모형이 너무 많고 그 특성을 파악하여 적용하는데 어렵다.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초등 교사들이 도덕수업을 꺼리는 이유들은 (필자의 지나친 주관적 판단일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 중의 하나 혹은 두 가지 이상으로서 연관되어 발생한다고 필자는 생각된다. ① 도덕과 교육의 성격이나 특성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② 초등 도덕 수업에서 가르쳐야 할 추상적인 윤리학적 원리나 가치·규범을 초등 학생들의 발달 수준이나 일상생활의 경험에 맞게 재구성하여 적절하게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③ 가르쳐야 할 내용을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게 적절하게 재구성했다고 해도 초등학생들이 재미있고 유익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④ 도덕수업에 대한 교사 나름의 진지하고도 창의적인 연구가 없이 교육과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려고 하거나 교육과정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 과거의 도덕 수업의 관행으로만 일관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도덕과의 특성, 학생들의 발달상의 특성, 그리고 가르치고자 하는 수업의 주제나 목표 등을 고려한 수업 내용의 재구성과 효과적인 교수·학습의 방법을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한다. 물론 여기서 우리는 교사의 창의적 안목 내지 노력 부족만을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소개하고 있는 도덕과 수업 모형 및 교수 학습 방법의 적용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 주로 사용되어 온 개념분석모형, 집단탐구모형, 가치갈등모형, 역할놀이모형 등에 익숙한 현장 교사들에게 통합적 인격함양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배려모형, 가정연계모형, 봉사활동모형, 가상체험모형 등이 도덕성의 정의적, 행동적 요소의 발달을 위해 새롭게 도입되었다. 그러나 교육과정이나 교사용 지도서에 소개된 새로운 수업모형의 절차나 과정이 형식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교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2차시의 도덕성의 정의적 영역 발달을 위해 적합하다고 소개된 배려수업모형의 경우를 보면, 크게 4단계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적인 과정과 절차가 없어³⁾ 모형의 적용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다(경인초등교육학회, 2002). 실제로 필자는 2002년과 올해 전남도 지정 도덕과교육 연구학교인 고흥 동강초등학교에 과련교수로서 활동하면서,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에 소개된 수업모형의 적용을 연구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많은 교사들이 도덕수업에 대해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 이유는 수업모형이 너무 많다는 것이고⁴⁾, 그러다 보니 그것이 그것 같고, 각 모형별 특성이 쉽게 들어오지 않아 적용하는데 어

3) 솔직하게 표현하면, 현행 도덕과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수업 모형에 관해서 교육대학교 교수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왜냐하면 전국의 초능 교사들이 활용하게 될 모형 소개가 도덕교육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 합의하에 제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4) 이 연구에 참여한 한 교사는 수업협의회 때 필자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소개하고 있는 도덕과 수업모형만 하더라도 12개 정도인데, 10개 교과당 적어도 2-3개의 수업 모형이 있다고 할 때, 한 교사는 적어도 20-30개의 수업 모형에 통달하여야 각 교과와 특성에 부합한 수업을 효과적으로 할 것이다. 그런데 한 교사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고서야 수많은 잡무처리와 생활지도를 병행하면서 해당 수업 모형에 대해 천지하게 알 수 있도록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많은 수업 모형을 추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상세화 방안이 병행되

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2002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행한 “초등학교 10개 교과와 교수·학습 방법과 적용 방안 탐색을 위한 세미나”의 <도덕과 교수·학습방법의 탐색과 개발>이라는 분과 발표에서 도덕과 교수·학습방법은 그 동안 도덕과 목표 및 내용 체계에 관한 연구들에 비해 다소 부진한 편이었다고 진단하고, 그 이유로서 다음과 같이 넷 가지를 들고 있다. ① 교과전문가나 교사들에게 교육목표가 분명하고 교육내용이 풍부하게 주어진다면 교수·학습활동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이 팽배한 점, ② 교사들의 직전교육을 담당하고 교육대학교 교수들 중 많은 사람들이 도덕과 교수·학습방법의 문제는 주로 교사들의 몫이지 대학 교수의 몫은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 ③ 주로 예전에 알고 있던 방법을 주로 활용하면서 새로운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 개발 및 적용에 관심을 두지 않고 소홀히 해 왔던 점, ④ 교육 여건과 학교 단위에서의 교육과정의 자율적 운영 능력의 부족 그리고 교사직전교육과 재교육 과정에서 교수·학습방법과 관련된 과목이 많이 부족하거나 현장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이 연구에서 교사들의 요구 사항을 보면,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들 중에는 내용별로 지도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와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의 안내와 이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소개하는 자료 등으로 응답되었다는 점이다(차우규, 2002).

초등학교 도덕과 교수·학습방법에 관한 교사들의 의견 조사를 보면,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이 모호하고, 도덕과 교육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수업 모형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맞게 가르쳐야 할 내용과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한다. 도덕교육을 위한 학습 자료도 매우 부족하고, 있는 것도 일회성 자료이므로 다시 제작해야 하는 부담이 크며, 이를 피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하지 않는 ‘입’자료에 의존하기 쉽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개념과 절차를 정리하고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하나의 수업 모형이 전 수업과정에서 일관되게 활용되기란 쉽지 않지만, 대체로 현장의 도덕수업을 참관해 보면 교사들은 가르치고자 하는 수업의 목표와 관련 제재에 대한 분석 후, 어떤 수업의 모형이나 전개 과정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창의적인 안목이나 연구가 충분하지 못함을 발견했다. 특별히 도덕수업에 관심을 가진 소수의 교사들을 제외하고는 피상적으로 도덕수업을 접근하곤 한다.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거나 국어시간과 차이가 없이 먼저 학생들에게 관련 자료를 읽게 하고 교사가 그 결론을 제시해 주는 식으로 끝내게 된다.

셋째, 도덕과 교육과정 운영시간(연간 34시간)에 비하여 가르쳐야 할 내용이 너무 많다는

지 않고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이어서 과중한 일상업무와 여러 교과 지도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교사들에게는 충분하게 연구할 수 없기에 부담만 주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차라리 어떤 제재나 수업목표에도 큰 부담없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1-2개의 기본 수업 모형이 있었으면 좋겠다.”

것이다. 물론 제6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가르쳐야 내용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많게 느껴진다고 한다. 교육과정상에는 교과서는 예시적 자료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도덕과 10개의 제재를 모두 다루기 위해서는 ‘도덕 교과서’와 ‘생활의 길잡이’를 전혀 간과할 수는 없고, 학부모들은 이 두 책을 모두 가르쳐주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지도해야 한다는 데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교육과정에서 권장하는 것은 교사의 창의적인 교재 연구에 의해, 적절하게 선택하여 지도하는 것이지만, 취사선택하여 가르치면 당장 학부모들이 도덕수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편견을 가져 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주당 1시간으로는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도덕성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요소들의 통합적 달성으로 인한 자율적인 도덕 생활을 가능케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훌륭한 인격을 지닌 학생을 길러내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 그리고 연속적인 시간 운영이 필요한데, 주당 1시간으로는 이러한 교과의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주당 1시간의 수업 운용으로는 아동들로 하여금 학습의 연속성을 느끼도록 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며, 연속성이 상실된 수업은 그 효과를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다(신현우, 2002; 경인초등교육학회, 2002).

2. 학교 밖의 문제

첫째,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운영 상의 문제 이외에도 현재 우리 나라 초등학교가 안고 있는 열악한 환경과 분위기가 초등 도덕교육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과밀 학급으로 인하여 교사와 학생간의 친밀한 관계, 인간적인 관계 형성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사와 학생간의 대화가 부족한 실정이고, 있다고 해도 매우 형식적이다. 또한 교사를 존중하지 않는 아이들, 학부모, 사회 분위기로 인한 교사의 권위 실추 그리고 교사가 학생을 사랑으로 대하지 않거나 바른 인격 형성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는 등 총체적인 교단의 황폐화는 도덕교육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학생은 교사의 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으며, 교사는 학생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교실붕괴 내지 학교 붕괴로 대변되는 교단의 황폐화는 초등학교에서도 점차 심각해져가고 있는 바, 이는 바로 초등 도덕교육에 득이 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다른 한편으로 성적 위주의 학교교육이 도덕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가로막고 있다. 우리의 학교교육에서는 평가의 정도가 지나치고, 평가의 기준도 지식위주의 성적에만 치우쳐 있다. 이로 인하여 초등 도덕교육은 구호에 그칠 뿐 학생의 도덕적 품성이나 행동은 주지 교과 성적의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그 동안 우리 나라 교육은 입시위주와 성적 우수자 중심의 한 줄 세우기식 교육 풍토 속에서 학교는 물론 가정에서 학생들의 건전한 인격발달이 등한시되어 왔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교육도 비인간화의 주범인 입시 위주의 경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부만 잘하면 머릿이 없거나 예절이 없어도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냉정한 마음을 지녀도 정당한 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거짓말을 해도 대충 눈감아 주고 마치 큰일 아닌 것처럼 넘어가 버린다. 가정이든 학교든 오로지 학생들이 성적이나 등급 올리기에 열중하여 학생을 다그친다. 공부 잘하는 것 이외에 다른 소중한 가치란 없는 것처럼 인식하도록 학생들을 몰아간다. 이와 같이 지나친 경쟁교육은 인간으로서의 바람직한 성격형성을 저해한다.

셋째, 일부일수도 있지만 교사들 중에는 교사로서의 투철한 사명감이나 양심을 견지하고 교육 본연의 활동을 충실하게 하기보다는 승진을 위해 필요한 수단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몰두하는 풍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도덕교육에 대한 무관심 내지 경시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덕수업을 잘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기에 도덕수업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적 기능 습득에 취약하다. 초등학교 교사들의 도덕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더라도, 기능위주의 교과를 더욱 중시하는 현 우리의 교육풍토나 사회의 도덕성 붕괴는 초등 도덕교육의 내실화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초등학교 도덕교육은 도덕 교과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교육과 아울러 학교 전체의 도덕교육 프로그램이 내실있게 운영될 때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바, 우리의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도덕교육(인성교육)의 프로그램은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대부분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효과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학교에서 운영되는 도덕교육 프로그램에 학생들은 큰 의미와 관심을 두지 않고 있으며, 교사들은 상부의 요구에 따라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그 내실성에 회의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교사들의 반응을 보자(이인재, 2002a).

“교사들이 도덕교육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승진을 위한 점수 획득에 있다. 따라서 도덕교육 내지 인성교육 시범학교로써 시범 및 공개 발표가 끝나면 그 프로그램이 지속되지 않음으로써 성과가 없고 일반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질위주의 인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요구에 집착하다 보니, 주로 심성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마치 바람직한 성격형성 및 심성이 갖추어지면 훌륭한 인성함양이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오히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잘 되려면 도덕과의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교사의 특별한 배려가 절실히 요구된다.”

다섯째, 초등학교의 도덕교육이 가정과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도덕교육이 잘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가정이나 사회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강하면, 학생들은 겉으로만 또는 학교 안에서만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사례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 물론 우리의 초등학교에서 가정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도덕교육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그것들이 실효성 없이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것에 그치는 실정이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성적에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건전한 친구 관계, 바른 생각과 행동, 원만한 학교 생활 등 도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여섯째, 초등학교의 도덕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지지해야 할 학교 외적 환경의 유해성도 큰 문제이다. 먼저 한국 사회의 가정교육의 역기능이 심각하다.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과잉보호가 지나치다. 자식이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의식이 과하다보니 자식의 웬만한 결점에 대해서는 신경을 기울이지 않는다. 또한 지나친 자녀 위주로의 생활양식이 자기 중심적인 인간을 키워내고 있다. 나만이 최고라는 생각은 타인을 존중하거나 배려하는 마음, 특히 감사하는 마음을 없애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어린 시절부터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되는 일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부모가 시켜야 하나, 자녀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방임하게 되니 “원하는 것은 해도 좋고 해야만 한다”는 그릇된 생각에 휩싸이게 된다. 오늘날 한국의 가정이 안고 있는 문제는 부모가 자녀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적게 갖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지나치다는 점이다(이인재, 2002a). 우리의 사회적 환경은 어떠한가? 개인적·집단적 이기주의의 만연, 인명정시 풍조, 각종 불법, 탈법, 부조리, 대중대체의 폭력적이고 퇴폐 향락적인 무차별 공세 등에 청소년들은 물론이고 성인들까지도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천지하게 물질적 이익여부이다. 돈이 되는 것이면 그 어떤 것도 정당화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천박한 상업주의, 물질주의, 향락주의, 퇴폐주의, 한탕주의 앞에서 인간의 양심, 도덕적 수치심 혹은 죄책감 등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맥없이 주저앉고 만다.

IV. 초등 도덕수업의 효율화 방안

지금까지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 운영상의 측면과 초등학교 도덕교육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나 분위기를 중심으로 초등 도덕교육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앞으로 초등 도덕수업의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는데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가?

1. 초등 도덕과 교육에 대한 이론적, 실제적 정당화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초등 도덕교육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도전들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

우리 나라의 역사적·문화적 전통과 현 시대 및 미래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적 특성, 그리고 초등교육 및 초등학생의 발달적 특성에서 요청되는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의 타

당한 논리적, 경험적 근거를 확립하여 도덕과 교육에 대한 거부나 경시에 적극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 논리적 정당화 근거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쉽게 생각하여 초등 도덕과 교육이 교과로서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초등 도덕과 교육의 축소 내지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반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국어과에서 가르치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데, 왜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가르치고자 하는가? 국어과에서 배웠다고 해도 우리의 말과 글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교과를 통해서 배운 것이 잘 실천되지 않는다고 해서 교과를 통하여 가르칠 수 없다는 논리가 정당한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러한 논리를 초등 도덕과 교육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초등학교에서 별도의 교과를 두고, 이 교과시간(도덕수업)을 통해서 다른 교과시간에 하지 않는 독특하고도 필요한 활동을 함으로써 일상생활을 통한 교육이 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인간답게, 즉 가치롭게 살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삶인가? 왜 우리는 도덕적으로 행동해야 하는가?”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답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스스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가치로운 삶에 대한 윤리적 탐구는 그 어떤 다른 교과적 탐구보다 앞서야 하며, 이는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다른 교과에서는 그 해답을 쉽게 찾을 수 없기에, 별도의 특정한 교과 즉, 도덕교과를 통해 어릴 때부터 아동들에게 그러한 사고와 판단의 틀을 마련해 주고 실천경험을 높여 주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이 바로 초등 도덕과 교육의 목표이며 따라서 도덕과 교육이 존재해야 할 이유라고 생각한다. 어떤 것이 더 가치로운 삶인지 고민하지 않는 것은 인간으로서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며, 그것을 고민할 지 모르고, 그래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이유로 초등 도덕과 교육의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무지에 대한 합리화에 불과하다. 인간이 지닌 양면성과 도덕적 삶의 관계에서 볼 때, 초등 도덕과 교육이 갖는 의의는 인간으로서의 도덕적 삶에 대한 해답을 선명하게 찾아 가르침으로써 장차 훌륭한 인격자로 성장하는데 있어 단단한 초석을 마련하는데 있다.

도덕적 삶은 인간으로 마땅히 깊어지고 가야할 숙명과도 같은 것이며, 인간으로서의 도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을 반성하게 하여 비도덕적 행동에 대한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치게 하는 도덕적 의지(에너지)를 각자의 머리와 가슴속에 강하게 갖게 해야 한다. 어릴 때부터 올바른 행동에 감동 받고, 모범적 삶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지닌 사람일수록 장차 도덕적으로 살아가는데 큰 힘을 얻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 도덕적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행동성향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인간의 도덕적 행동은 단기간에 확립되는 것도 아니며, 한번의 도덕적 행동을 보고서 그 사람의 전체적 삶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초등 도덕과 교육은 그 성과에 관계없이 반드시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다.

인간의 특성과 윤리적 삶의 본질을 놓고 볼 때 인간다운 삶을 위한 자극제로서 도덕교육은 평생을 통해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의 도덕적 성향의 토대를 형성하는 초등학교시기에 어떤 도덕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 그 이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 어떻게 초등학교 시절에 도덕과 교육을 받았는가의 결과는 민 훗날에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당장 목전에서 도덕과 교육의 성과를 보지 못했다고 해서 초등 도덕교육이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것은 위험하다.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할 수 있고, 몇 번 실천했다고 해서 도덕적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도덕성 수준은 끊임없이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게 되는 바, 성숙한 도덕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악함에 대한 유혹을 가차없이 뿌리칠 수 있는 도덕적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도덕과 교육이 요청되는 것이다.

2.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내실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① 이를 위해서는 초등 도덕교육의 위상을 약화시키고 있고 내실화를 저해하는 도덕과 경시분위기가 사라져야 하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의 개정의 근본 방향과 특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며, 또한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되어야 한다.

② 흔히 초등학교에서 도덕수업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한다. 가르쳐야 할 내용이 수학과나 과학과처럼 손에 잡힐 정도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교사의 주관에 쫓인 훈화, 강의 위주의 단순한 수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곧 도덕수업에 대한 흥미나 관심을 떨어지게 만든다. 초등 교사들이 도덕수업에 대해 갖는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등을 해결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도덕수업을 자신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의 전문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대다수의 초등학교 교사들 중에는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이론이나 그것을 제계에 맞게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다. 이것을 일방적으로 해당 교사들의 능력 부족이나 의욕의 부족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된다. 교사 양성 기관에서부터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도덕과 교수·학습·방법에 대해 교육받지 않고 현장에 투입되었다고 한다면, 도덕수업을 잘 하리라고 큰 기대를 갖는 것 자체가 무리인 것이다. 그러므로 각 교육대학교에서는 현장에 적시에 활용할 수 있는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밀도 있는 교육을 해야하며, 아울러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이에 대한 연수과목이 반드시 개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등학교 도덕수업 시간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덕과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에 현장 교사들을 참여시킴으로써 현장 적합한 교수·학습방법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③ 초등 현장에서는 도덕과 수업을 위해 필요한 자료가 부족하며, 스스로 제작하여 활용하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바, 현장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익한 자료를 많

이 제작하여 보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자료들을 현장 교사들이 숙지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교사들에게 배부된 자료는 회람 형식으로 돌려지고 일정한 장소에 보관됨으로써 정작 진정으로 관심 있는 소수의 교사 이외에는 활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원양성 기관에서의 연구 결과물들은 자료 배부뿐만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연수과정을 통해 이를 직접 알게 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초능력을 심어주어야 한다. 특히, 도덕과 교수·학습과정에 투입할 학습자료를 제작하고 지원할 “도덕과 수업지원 센터”를 교육대학교 내에 설치하거나 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가 연합하여 공동 운영할 필요가 있는 바, 이는 교원양성대학교 뿐만 아니라 적어도 교육청별로 마련되어 적극적으로 교사들이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④ 다른 교과에 비해 초등 도덕과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등학교 교사들은 대체로 전문 교과를 스스로 선택하여 집중적 연구를 하고 있는데, 도덕과를 선호하는 교사들이 많지 않는 것이 그 하나의 증거이다. 그 이유로는 도덕수업을 어렵게 느끼고 또한 승진 등에서 별로 인센티브를 얻을 만한 매력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덕과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즉 도덕과 교육과정이나 교수·학습 방법 및 학습 자료의 개발과 그 활용 방법에 대한 연수를 받을 기회가 극히 적다. 이러한 일련의 악순환이 더욱 도덕과에 대한 무관심 내지 경시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관리직 교원들이 초등 도덕교육에 대해 무관심 내지 경시가 심각할 때 그 파급 효과는 더 크다고 한다. 이들은 평소 초등 도덕과의 특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도덕수업에 대한 협의회 등에서 잘못된 앎을 강요함으로써 도덕수업에 대한 오해와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기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연수가 요구되며, 일반 교사를 대상으로 한 도덕과 교육에 대한 교사의 연수 기회를 늘려 최근 도덕교육에 대한 동향을 올바르게 파악하게 하고, 교수·학습방법, 자료제작 및 자료제시 방법 등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⑤ 현행 7차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주당 1시간의 수업을 통해 학년별로 주어진 10개의 주요 가치 덕목을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접근을 통해 가르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본다. 물론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하면, 도덕과는 모든 교과에서 통합적으로 지도하고, 제량활동 시간이나 생활지도를 통해 지도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왕에 역할을 부여해 놓은 초등 도덕과의 활성화를 통해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강화시켜야 하며, 이는 적정수의 시수의 확보가 중요하다. 가르쳐야 할 과목과 다양한 내용을 제시하고도 가르칠 시수의 부족으로 인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문제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도덕 수업 시간은 적어도 연간 34시간에서 68시간으로 늘려야 한다고 본다.

⑥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도덕과 수업시간이 교내 생활지도 차원에서 혼화하는 시간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시간표 상도 대부분이 월요일 1교시에 넣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아

침 조희(흔히 운동장에서 하는 애국조희) 시간의 연장으로 생각하고 교장, 교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충하거나 정신교육하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수업 결손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월요일 토요일 1교시에서 수요일이나 목요일 2, 3교시로 배정하는 것도 도덕교육의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⑦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예화, 문제사태의 내용 및 제시방법이 학생들의 정서와 거리감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 마련이 요구된다. 요즘 초등학생들은 화려한 애니메이션의 극적인 연출, 짜릿하고 실감나는 오락 게임 등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언어 사용을 통한 훈화위주 그리고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의 예화, 뻔한 정답이 정해져 있는 상황 등에 식상할 수밖에 없다. 물론 현행 교과서를 만들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최대한 보완했지만 여전히 활용하는 교사나 학생의 관점에서 보면 부족한 점이 나타날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과서만을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교육과정이 제안하는 기본 방향에 근거를 두고 교사의 창의적 안목에 터하여 아동의 관심과 흥미 내지 발달적 특성, 지역성 그리고 계절 및 시사적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작 등을 통한 지속적인 보완이 병행되어야 한다.

⑧ 요즘 초등학생들은 머리는 총명하여 교사의 발문에 그럴듯한 답변을 잘하는데 비해 그렇게 행동하고자 하는 의지나 실천력 등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교사가 이러한 아동의 특성을 헤아리지 못하고, 행동이 담보되지 않고 말로 하는 것, 즉 ‘기대된 방향으로의 텅 서비스’를 인정하고 진정한 습관화에 소홀히 한다면 도덕수업에서 기대하는 인행이 일치된 인격적 인간을 길러내는데 실패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교사는 아동들이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일관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복, 체험, 실천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교사, 또래간, 부모가 상호 연계한 확인을 해 주어 언행의 일치가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3. 초등학교 아동들의 심리나 도덕성 발달 상태(정도)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이에 적합한 교육 내용과 방법을 효과적으로 구안하여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덕성 발달에 관한 여러 이론들을 종합해 볼 때 “이성의 궁전을 도달하려면 습관이라는 뜰을 지나야 한다”는 원리가 일반적으로 적용됨을 알 수 있다(이인재, 2002b).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도덕적 가치나 규범을 성인의 권위나 모방과 같은 기제에 의해 받아들이고, 이를 칭찬, 보상 등의 강화에 의해 내면화하면서 반복, 실천하는 가운데 습관화해 가는 발달 특성을 보이고 있다. 초등학교 중·고학년 학생들은 인지능력이 발달하고 자기 자신과 주위의 사물이나 인간관계에 대한 보다 넓은 시각이 형성되어 가면서 도덕적 가치 규범을 무조

전적으로 수용하거나 외적 권위, 압력 등에 의해 이를 받아들이고 실천하기보다는 점차 그러한 도덕적 가치나 규범이 뜻하는 바와 필요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합리적인 신념 위에서 이를 선택하고 그 기초 위에서 행동하려는 쪽으로 발전해 간다.

그러나 초등학교 시기의 아동들은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적다고 해도 그들 나름대로의 수준에서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여 행동을 하는 자율적인 존재이다. 도덕성 발달과 인격 형성에 관한 영역이론(Domain Theory)의 대표적 학자인 누치(Larry Nucci) 교수에 따르면,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풍부하지 못한 유치원 아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라 할지라도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도덕의 문제에 대해 의식하고 판단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들의 도덕성 함양을 위한 교육적 실천에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충분히 도덕적 문제에 대해 탐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들의 수준에서 발생하는 실질적 문제 사태를 적극 활용하여 토론하게 하여 타인의 관점을 수용하고 보다 나은 행동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L. Nucci, 2001).

인간의 도덕성 발달 혹은 인격발달은 출생하면서부터 아니면 태아기부터 발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대부분 초등학교시기에 이르러 도덕성발달 내지 인격발달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자제력(self-control), 죄책감(guilt), 그리고 관점채택(perspective-taking)의 능력 등이 크게 발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M. W. Berkowitz, 2002). 5-7세가 지나면서 아동들은 만족지연을 할 줄 알고, 공격적 충동을 통제하며,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신의 위반 행동에 대한 자기 비판적인 정서적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죄책감의 발달은 아동기의 인격 발달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관점채택은 취학 전과 초등학교 시기를 거쳐 발달하고 청소년기를 거쳐 계속적으로 발달한다. 타인의 도덕적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주요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3-4세와 12세 동안에 나타난다. 도덕이란 상이한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다룰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기에 관점채택의 발달은 인격발달의 중요한 기초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아동의 도덕적 지능>이라는 책을 쓴 콜즈(Robert Coles) 교수도 아이들은 성인들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피는 ‘목격자’라고 규정하고, 따라서 아이들은 성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잘 살피고 그에 따라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행동하게 된다고 말한다(R. Coles, 정홍섭역, 1997). 그에 의하면, 인간이 일생에서 가족과 주변환경으로부터 가장 많은 것을 얻는 때가 바로 초등학교 시절이며, 이 시기에 아이들의 도덕성은 점차 강화되어 가며, 아이들은 세상의 여러 가지 이치 즉, 세상일이 ‘왜’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신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한마디로 이 시기는 아동의 양심이 형성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 것이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학교라는 장소에서 최초로 각 교과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과 가능성의 세계를 배우고 경험하며, 또래들과 함께 학습과 경험을 공유한다. 또한 이 시기의 아이들은

많은 상상을 하고 용기를 갖고 세상을 탐색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신비의 시기이다. 활기찬 탐색이 이루어지는 열망의 시기이며, 아이들이 사물을 이해하고 파악하며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려고 노력할 때 부모와 교사가 옆에서 열심히 도와주어야 하는 시기이다. 또한 이때 도덕적 상상력이 성장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아이들은 열성적이고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생활을 경험하는 상상을 하기도 한다(위의 책, 139-140). 초등학교 교실에서는 토론하기, 고려하기, 표현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 옳고 그름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복잡성, 애매성, 모순, 변화 등에 대한 반성적 고찰을 해야 한다.

4. 초등학교 도덕과 수업의 원리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과 활용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도덕과 교육의 목표는 일차적으로 도덕과 수업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도덕과 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그런데 초등 현장은 그렇지 않다. 많은 초등학교 교사들은 도덕수업이 어렵다고 말하면서 도덕수업을 부담스러워하고 또한 꺼리고 있다. 정말 도덕수업은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인가? 교사들 중에서 도덕과 수업을 어떻게 느끼는 경우는 도덕수업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못하여 발생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더 큰 문제는 궁금함 내지 모르는 점을 알려고 하는 열의나 노력 없이 어렵다고 미리 단정하고 짐을 먹는다는 것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제기하는 도덕과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초등 도덕교육의 특성과 초등학생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도덕수업 내용 및 방법의 재구성이 충분치 못한 채 수업에 임하는 것도 도덕수업에 대한 자신감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 그렇다면 도덕교육 혹은 수업에 대한 일반적인 방향을 잘 제시하고 있는 도덕과 교육과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도덕수업의 핵심은 교사가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도덕적 변화와 성장을 분명히 이끌어내도록 하는 것이다. 도덕수업 시간은 도덕적인 행위가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실제 상황이 아니다. 즉, 질서를 지켜야 할 상황은 수업 시간이 아니라 수업 시간 이외의 공공 장소에서 질서를 지킬 때의 상황이다. 가족간에 우애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상황도 역시 수업 시간외의 가정 생활에서의 상황이다. 그러므로 도덕과 수업 시간은 이러한 상황을 언어로 요약하여 줌으로써 학생들이 모범적인 행동과 관련된 규범과 가치를 알고, 그러한 가치와 규범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감정적으로 동기를 부여하며,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도덕수업 시간은 왜 인간이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지, 현재 나의 도덕적 삶은 어떤 수준에 와 있는지 등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한 각오를 다지는 시간

이 되어야 한다.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덕성과 태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올바른 행동을 했던 사람들의 모범적이거나 교훈적인 삶을 살피면서 자발적으로 감동 받고, 존중감을 가지면서 자신도 그러한 삶을 살겠다는 강한 실천의지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이인재, 2002b:161-162). 그런가 하면 또래들간, 교사와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강점에 대해서는 자긍심을 갖고, 타인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 제공의 시간이 되어야 하고, 자신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반성할 수 있으며, 자신보다 나은 사람으로부터 배워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도덕수업은 올바른 도덕적 지식을 갖추 수 있도록 도덕적 사고력 내지 판단력을 자극하는 시간이며, 도덕적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도덕적 정서를 풍부히 갖게 하는 시간이며, 실천과 체험의 기회를 가짐으로서 도덕적 행동의 동기화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도덕수업 시간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가치로운 삶을 살며,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인류의 보편적인 삶의 지혜를 초등학교생들의 눈높이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스스로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뿐만 아니라 올바른 삶이 궁극적으로 행복하고 비도덕적인 삶이 불행하다는 인간의 삶의 교훈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증명해 줌으로써 선을 열망하고 사랑하고 악을 기피하고 미워하는 강한 감정적, 행동적 동기화를 갖게 해 주는 과정인 것이다.

흔히 도덕수업 시간에 다루는 현대를 살아가는 한국인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핵심적 가치·규범에 대해 초등 학생들은 어린 시절부터 자주 들어온 터라 지적 호기심을 주지 못하고 그래서 수업시간이 활력이 넘치지 못하고 지루한 시간으로 간주되어 결국 도덕수업을 하기가 겁이 난다고 교사들은 말한다. 물론 초등학교 시절에 가르쳐야 할 가치·덕목은 4개의 생활영역별로 총 20개를 반복적으로 가르치도록 되어 있어 틀린 얘기는 아니다. 그렇지만 교사가 해당 학년 해당 차시에서 얼마나 학생들의 일상경험에 비추어 그들의 도덕적 사고와 판단을 자극할 수 있도록 하느냐에 따라 이전에 배웠던 가치·덕목을 다룬다고 해도 학생들이 지루하다고 느끼지 않게 할 수 있다. 동일한 문제 사태에서도 학생들의 도덕적인 반응은 천차만별이다. 도덕적으로 접근하는 학생이 있는가하면, 도덕적인 안목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도덕적으로 접근한다고 해도 그것에 대한 정당화가 다르고, 강조하는 비중도 제 각각이다. 그러므로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그래서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말은 타당하지 않다. 이전에 배웠던 가치·덕목이 관련된 문제 사태를 놓고 경험이나 관심 정도, 그것을 도덕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도가 상이한 아이들에게 왜 그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며, 나의 판단과 결정이 나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은 없는가? 만일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은 어떤 입장 내지는 느낌을 가질 것인가? 등 얼마든지 식상해 하지 않도록 하면서 충분히 도덕적 논

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문제는 얼마나 교사가 도덕수업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창의적 안목으로 본 차시 내지 제재를 접근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본다.

5. 학교 도덕교육을 저해하는 전반적인 교육체제를 개선해야 한다.

초등학교 도덕교육 현 실태 분석에서 나타난 것처럼, 초등학교 도덕교육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전반적인 교육체제를 변화시켜야 한다.

① 초등 도덕교육을 경시하는 교사들, 학부모, 학생들의 태도나 분위기가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 즉,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필요한 도구 교과에는 관심과 열의를 가지면서도 도덕과 교육을 무시하는 인식이나 분위기, 지식중심의 교육,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

② 비교육적인 학교 문화 풍토가 개선되어야 한다. 학교 속에 형성되어 있는 비도덕적 교육풍토가 바로 도덕과 교육에서 강조하는 핵심 가치나 덕목에 따라 행동하는 학생들의 도덕적 삶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이는 바로 도덕과 교육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생활하는 교실이나 학교를 서로 존중하고, 윤리적 가치가 통용되는 긍정적이고 도덕적인 환경(positive and moral climate)으로 만들어야 한다. 학급이나 학교를 도덕공동체로 운영한다는 것은 학급의 제도와 구조, 교실 생활의 분위기와 풍토, 교육적 활동, 관행, 개별지도 등을 민주적이고 도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급이나 학교에서 생활하는 동안 은연중에 도덕적 삶의 품성을 몸에 배도록 하는 것이다(이택휘, 유병열, 2000). 여기에는 학생들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도록 하는 일, 학급의 규칙을 자체적으로 정하여 스스로 지키게 하는 일, 학급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긍지를 갖게 하는 일 등이 포함된다. 학생들은 자신이 배운 가치나 규범(이를테면, 정직하고 친절해라, 남을 도와주어라, 타인을 배려하라 등)이 지지 받고 통용되는 것을 실제로 체험할 때, 그것을 자신이 끝까지 실천해야 할 소중한 가치로 내면화하게 된다. 또 학생이 생활하는 공간이 비도덕적 가치를 추호도 허용하지 않는 정의롭고 배려적인 공동체가 될 때 학생들에게 가르쳐지고 있는 핵심적인 윤리적 가치들, 즉 친절, 정직, 책임감, 공정성, 타인존중, 배려 등이 널리 확산될 수 있다.

③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진 가치와 덕목이 유지되고 통용되는 사회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덕적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행복하고 즐겁다”는 실제적인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덕적인 삶이 자신의 소망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유리하다는 점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에게는 도덕적으로 사는 삶이 행복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애써 강조하거나 설득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도덕적인 삶이 피해를 보거나 불행하게 되는 삶의 구조나 제도를 올바르게 바꾸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은 각 개인의 의식의 전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의식이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적 제도나 구조도 공정하고 정의롭게 변화되어야 한다. 제도 없는

의식은 무력하고 의식 없는 제도 또한 공허하기 때문이다.

V. 결 론

지금까지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초등 도덕교육의 현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도덕 수업의 효율화 방안에 초점을 둔 발전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현행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에 대해 전국을 단위로 한 체계적인 분석은 아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광주·전남지역 초등 도덕수업 및 연구학교 운영 협의회에서 교사들이 제기한 진지한 질문에 답하고 그들의 고민을 듣는 과정에서, 도덕수업을 하면서 부딪치는 어려움의 실상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이를 통해 초등 도덕교육의 위상이 어떠한지를 가늠해 볼 수 있었다.

현행 초등 도덕교육의 실상을 검토하는 동안 불가피하게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측면이 부각된 인상이 짙기도 하다. 그러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초등 도덕교육을 저해하는 내·외적인 요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덕교육을 받쳐주는 버팀목들이 여러 수준에서 존재하고 있으며, 이런 힘들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면 초등 도덕교육의 미래는 낙관적이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초등 도덕교육에 강한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교사가 비록 그 수가 적지만 있다는 점과 이들은 다른 교사나 학생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도덕 수업을 착실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통상 다른 교사들처럼 도덕교과를 전공교과로 해서 별 매력이 없다는 것을 모르지 않지만 나름의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과 호흡하면서 재미있고 유익한 도덕수업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현재 초등 도덕교육에 대한 관심이 마치 식어 가는 화로처럼 온기를 잃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러한 교사들이 있는 한 아직은 그 속의 불씨조차 꺼진 것은 아닌 상태이기에 희망적이라고 본다. 문제는 그런 희망의 씨앗을 찾아 왕성한 싹을 틔울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초등 도덕교육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들은 물론 초등학교 외적인 상황에서 촉발되고 있는 것도 많지만, 근본적으로 학교 안의 문제, 즉 도덕과 교육과정이 내실화 되지 못하고 있는 점, 도덕수업에 대해 어려워하거나 기피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초등교육의 구성원들이 초등 도덕과 교육의 황폐화를 걱정하고 개선하려는 인식의 전환과 정상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실천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교육대학교에서는 초등 학교 교사들이 자신 있게 도덕수업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적합한 필요한 것들을 연구 개발하여 적극 지원해야 한다. 특히, 도덕과 교수·학습방법의 활용

기능을 습득할 수 있는 교사 직전교육과 교사 재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차시별 수업 지도안 작성 요령과 함께 내용별로 지도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나 다양한 교수·학습방법 안내와 이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소개하는 자료가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① 교내 <도덕과 교육> 시간에 도덕과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있어야 할 것이며,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현장의 도덕수업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듣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현재 광주교육대학교의 경우, “현장교사 초빙 강사제”라는 것을 통해 2-4시간 정도 초등 도덕수업의 경험이 풍부한 교사를 <도덕과 교육> 시간에 초빙하여 초등 현장에서의 도덕수업의 노하우를 습득케 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좋다. ② 현직 교사대상 도덕과 연수에서 도덕과 학습지도방법 관련 과목 수나 시간을 대폭 확대하여 적어도 연수반은 교사들은 도덕과 교수·학습방법에 대해 체계적이고도 실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들이 초등 현장에 뛰어들어 도덕교육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며 같이 고민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초등 도덕교육을 이끌고 있는 현장 교사들을 격려하고 대학 교수의 이론과 현장 교사의 실재가 어우러진 지혜를 모아 초등 도덕교육의 제반 해결책을 공동으로 찾는 팀워크가 필요하다. 초등현장의 애로점이나 요구 등에 눈감고 상아탑에서만 활용될 수 있는 연구나 강의는 궁극적으로 초등 도덕교육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무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초등 도덕교육의 제반 문제해결은 초등 교사만의 몫도 교육대학교만의 몫도 아닌 교내-초등학교(교육청)-가정의 공동 문제이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 경인초등교육학회(2002). 「초등 도덕교육의 문제와 정상화 방안」. 2002년 경인초등교육학회 창립 및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pp. 87-113.
- 교육부(1997).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3)」.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pp. 176-206.
- 신현우(2002). “현행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의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초, 중등학교 도덕과 교육의 실태파악과 새로운 교육목표 및 내용체계의 정립」, 연구자료 ORM 2002-7, p. 178.
- 이인재(2002a). “초등학생의 인성발달에 미치는 열린 인격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문화기술적 연구. 한국국민윤리학회 「국민윤리연구」, 제50호, pp. 288-289.
- (2002b). 제7차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에 근거한 도덕수업의 효율화 방안.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초등도덕교육」 제10집. pp. 157-163.
- (2003). “초등 도덕교육의 실태와 발전방안,” 한국윤리교육학회, 2003년 춘계학술대회, 「초·중등 도덕교육의 현재와 미래」, 2003년 5월 31일, pp. 6-10.
- 이택희, 유병열(2000). 「도덕교육론」. 서울: 양서원. p. 301.
- 임병덕외(1998).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p. 30.
- 정보주(2002). 현행 도덕과 교육의 쟁점과 올바른 이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초·중등학교 도덕과 교육의 실태파악과 새로운 교육목표 및 내용체계의 정립, 연구자료」 ORM 2002-7. pp. 116-132.
- 정세구(1991). 제6차 교육과정 개정에 즈음하여 초·중등학교 도덕과 국민윤리과에 관한 잘못된 견해 5가지와 올바른 견해 5가지. 한국도덕국민윤리과교육학회 「초·중학교 도덕과와 고등학교 국민윤리과는 왜 공통필수교과로 존속되어야 하는가?-제 6차 교육과정 개정에 즈음한 교과과정의 정당성과 개선방향에 관한 자료집」 1991년 8월. pp. 2-6.
- 조난심, 윤현진, 이명준, 차우규(2003). 「도덕교육학신론」. 서울: 문음사.
- 조난심(1999). 도덕과 교과서의 개발 방향. 광주교육대학교 부설 초등교원 연수원 「1999년도 도덕과 교육과정 연수 교재」. p. 131.
- 차우규(2002). 초등학교 도덕과 교수·학습방법의 탐색과 자료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초등학교 10개 교과목의 교수·학습방법과 적용 방안 탐색을 위한 세미나(2)」, 연구자료 ORM 2002-11-2. pp. 17-18.
- 한국교육개발원(1992). 「제6차 교육과정 각론 개정연구-국민학교 바른생활·도덕과」.
- 한국교육개발원(1993). 「한국사회의 도덕적 위기 극복을 위한 학교 도덕교육의 역할(2)」. 연구보고 RR 93-32.

- Berkowitz, M. W.(2002). "the Science of Character Education," W. Damon(ed.), Bring in a new Era in Character Education. California: Hoover institution Press. pp. 51-52.
- Coles, R.(1997). The moral intelligence of children, 정홍섭역, 「도덕지능(MQ): 성공하는 부모들의 새로운 자녀 교육법」. 서울: 해냄. p. 36
- Nucci, L.(2001). Education in the moral Domain. Cambridge University Press, 제1장.

• 논문접수 : 2003년 10월 15일 / 수정본 접수 : 2003년 11월 20일 / 게재 승인 : 2003년 12월 4일

ABSTRACT

The realities and developmental plan of the 7th moral curriculum in the elementary school

In-Jae Lee

(Professor,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the proper ways how to accomplish the goal of moral teaching effectively according to the 7th moral curriculum. To the end, First, I analysed how the 7th moral curriculum is practised, what are difficulties and what is supplemented to solve the problems. While analysing the realities of moral education based on 7th moral curriculum in the elementary school, I found that all the members of school including teachers and students didn't consider the moral teaching as a important educational activity. This recognition connected, therefore, closely 'the crisis of moral education'.

This paper focused on two points. One is how is connected between the crisis of moral education and the present position of moral education in the elementary school. The other is what is the realities of moral education, and if any, what is the problems and how to solve them effectively. In order to examine the realities of moral education, I approached two ways, that is, 'in' and 'out' of the elementary school. The former means the management of moral curriculum, the latter moral environment of home and community as the supporter of moral education in the elementary school. As the proper ways for development of moral education, I proposed the producing of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rationale of moral education, the promotion of knowledge and using ability in moral teaching and improvement of bad environment around the elementary school.

Key Words : the crisis of moral education, the 7th moral curriculum, moral education as curriculum, the moral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elementary students, the improvement of environment around the school.